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자유게시판	3
우리들의 블루스 OST	3

우리들의 블루스 OST

작성일 2022.08.19 10:34

등록자 박정후

조회수 123

우리들의 블루스 OST

위스키 온더락 (가수 김연지)

그날은 생일이었어 지나고 보니

나이를 먹는다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니야

세월의 맛은 흉내낼 수 없잖아

멋있게 늙는 건 더욱 더 어려워

비오는 그날 저녁 Cafe에 있었다

겨울 초입의 스웨터 창가에 검은 도둑고양이

감당 못하는 서늘한 밤의 고독

그렇게 세월은 가고 있었다

아름다운 것도

즐겁다는 것도

모두다 욕심일 뿐

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

두려워서 하는 얘기

얼음에 채워진 꿈들이

서서히 녹아 가고 있네

허끝을 감도는 whisky on the rock

모르는 여인의 눈길 마주친 시선의 이끌림

젖어 있는 눈웃음에 흐트러진 옷사이로

눈이 쫓았다 내 맘 나도 모르게

차가운 열음으로 식혀야 했다

아름다운 것도

즐겁다는 것도

모두다 욕심일 뿐

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

두려워서 하는 얘기

얼음에 채워진 꿈들이

서서히 녹아 가고 있네

허끝을 감도는 whisky on the rock

아름다운 것도

즐겁다는 것도

모두다 욕심일 뿐

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

두려워서 하는 얘기

얼음에 채워진 꿈들이

서서히 녹아 가고 있네

허끝을 감도는 whisky on the rock

오남역 서희스타힐스

양평 휴먼빌 아틀리에

금곡역 삼부르네상스

워즈 드사외버

목록

실명인증글쓰기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Web Contents

